

현대로씨야어의 기능문체에 대한 이해

신철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체는 교제분야와 목적에 맞게 표현적효과를 높일수 있게 하는 문체론적수단과 수법의 체계입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외국어문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는것은 해당 외국어를 실지 써먹을수 있게 습득하는데서 매우 중요할뿐아니라 외국어리론교육과정에 제기되는 문체론적문제점들의 리론실천적해결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로씨야어리론교육에서 취급하는 로씨야어기능문체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한다.

로씨야어기능문체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로씨야어기능문체가 언어교제에서 이미 확정되고 일정한 기능적사명에 의하여 통일된 언어요소들에 의하여 표현된다는것을 옳게 인식하는것이다.

이것은 문체가 어떤 언어적요소들의 우연적인 집합체가 아니라 개별적인 언어요소들이 일정하게 특수한 조건에서 결합되어 구성되고 역사적으로 엄밀하게 형성된 기능적사명을 지닌 체계이라는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체의 본문들은 자기 고유의 구체적인 사명을 가진다. 즉 어떤 정책이나 사상, 사회여론(정론문체)을 표현하고 과학정보(과학문체)를 전달하는 등 구체적인 사명을 가진다.

기능적변종과정을 거친 언어수단들의 총체, 기능적변종과정을 거친 언어수단들의 본문안에서 리용과 호상결합, 통합수법들이 바로 기능문체의 특성을 이루게 된다.

로씨야어기능문체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능문체가 사회적으로 인식된 언어요소들에 의하여 표현된다는것을 옳게 인식하는것이다.

기능문체는 그 어떤 개인의 언어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을 초월하는 사회적언어행위의 산물이다. 이것은 해당 언어의 소유자들모두가 일정한 사회적교제를 사명으로 하는 언어요소들을 언어행위과정에 리용하고있는것으로 설명할수 있다.

로씨야어기능문체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능문체에서 쓰이는 언어요소들과 그 언어요소들의 리용수법과 원칙, 호상결합, 호상관계를 옳게 리해하는것이다.

기능문체들에는 그에 고유한 어휘-성구론적, 형태론적, 문장론적특성, 발음변화들이 존재한다.

실례로 과학문체와 공식사무문체의 본문들에서는 다의미동사와 행동을 나타내는 동명사로 구성되는 동사-명사결합을 리용하는것이 전형적이다.

현대로씨야어문체론에서는 이 현상을 《술어의 분렬》(расщепление)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단어결합의 실례로 производить анализ(분석하다), провести учет(실사하다), завершить переоценку товара(상품을 재평가하다) 등을 들수 있다.

기능문체의 특성은 특수한 언어수단이 얼마만큼 리용되었는가 하는것만이 아니라 개

별적인 언어요소들의 호상관계, 결합원리와 수법들이 얼마만큼 우선적으로 리용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그리고 같은 언어단위들과 범주들을 리용하는 경우 어떤 의미론적측면들과 표현적색채들이 적극 활용되는가에 의하여 기능문체의 특성이 결정된다.

기능문체들에서 서로 구별되는 특성들이 나타나는것은 언어교체의 목적과 해당한 문체의 사회적기능과 목적, 과업들이 서로 차이난기때문이다.

실례로 언어행위의 조건과 목적에 따라 인칭대명사의 리용이 서로 달라진다. 공식사무문체에 속하는 《청원서》에서는 인칭대명사 Я를 쓰지 않는다.

례: Прошу предоставить мне отпуск. (저는 휴가를 신청합니다.)

회화체에서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할 때 단수 1인칭대명사 Я가 반드시 쓰인다.

례: Я так хочу.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Я считаю, что... (나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Я поеду встретить Нину. (나는 니나를 마중가겠습니다.)

그러나 연설체에서 특히 대학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Я를 쓰지 않는다. 과학토론회에 출현한 보고자는 《Я пришел к выводам.》(나는 다음과 같이 결론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Мы пришли к таким выводам.》(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한다. 여기서 쓰인 인칭대명사 Мы를 저자의 Мы라고 한다. 강사는 어떤 판단이나 주장을 결론할 때 청중들이 자기와 같이 행동하도록 추동하기 위하여 인칭대명사 Мы를 쓴다.

례: Итак, мы выяснили, что... (이렇게 우리는 ...을 해명하였습니다.)

우의 실례문장에서 Мы는 공동행동의 Мы라고 한다. 강의나 토론회에서 쓰이는 이런 Мы는 표현적빛깔이 거의나 중성적이다.

동일한 문체적형태들과 언어수단의 조직수법, 방법들은 여러 기능문체들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수 있으며 각이한 기능을 수행한다.

실례로 많은 단일문들과 부성분들을 가지고있으며 그 배치와 어조에서 주기적인 반복성을 가지고있는 복잡하고 전개된 문장을 볼수 있다. 이런 문장을 로씨야어에서는 전문용어로 период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장은 공식사무문체에서도, 정론문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정론문체에서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진술내용을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복잡하고 전개된 문장(период)을 리용한다면 공식사무문체에서는 《회답쌍방》의 목적과 합의조건들을 정확히 서술하기 위하여 우와 같은 문장(период)을 리용한다.

기능문체에서 언어수단의 내적조직은 다음의 요인들에 의하여 규정된다.

첫째로, 표준어소유자들이 추구하는 사회적교체의 기본사명과 언어교체의 과업과 목적이다.

실례로 과학문체는 과학정보를 전달하고 과학리론을 서술하며 정론문체는 어떤 사상을 서술하고 선전선동을 진행한다.

둘째로, 문체조성의 언어외적요인, 언어수단의 일부 공통적인 특성이다.

실례로 대중입말연설에서는 연설자와 청중사이에 직접적인 입말형태교체가 이루어지며 라디오와 텔레비존에서는 본문을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수단에 의하여 간접적인 입말형태교체가 실현된다.

문체조성의 요인들은 언어자료구성의 일반원칙과 개별적인 기능문체의 구별적특성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례로 회화체의 특성은 회화문장의 자연발생성, 정황에 대한 의존성(ситуативность)과 언어교제에 직접 참가하는 개인들사이의 언어행위에 의하여 규정된다.

전형적인 징표들의 총체로서의 기능문체의 내적구조가 가지는 특성을 문체조성의 기본요소, 주되는 경향성, 교제의 언어적기능으로 규정할수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문체조성요인에는 이러저러한 기능적변종에서의 언어수단조직수법과 구체적인 문체들에서 그 수법의 리용방법, 해당한 기능적변종에서 일정한 계열의 어휘와 문법적범주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속한다고 볼수 있다.

실례로 과학문체에서 학술용어의 특별한 역할을 볼수 있다. 정론문체에서는 어휘의 표현성과 표준화가 문체조성요인으로 된다.

동일한 대상을 서술한 각이한 기능문체의 본문들을 대조분석하면서 언어수단의 리용이 어떻게 각이한 문체들의 기능적사명으로, 목적으로, 과제로 규정되는가를 볼수 있다.

아래에 과학문체인 흰돌고래(Белуха)에 대한 《쏘련대백과사전》의 올림말과 문학예술문체인 유. 까자코브(Ю. Казаков)의 단편소설의 한토막을 주었다.

레: Белуха, белуга, млекопитающее семейство дельфинов подотряда зубатых китов. Длина тела до 6 м, весит до 1.5 т. Окраска взрослых белая (отсюда название). Распространен круглополярно, населяет арктические моря, встречаясь и среди льдов. Кожа имеет толстый(до 2 см) слой рыхлого эпидермиса. Питается рыбой, ракообразными и моллюсками. В погоне за рыбой часто входит в большие реки...; по Амуру иногда подымается вверх по течению на 2000 км и более. Живёт стадами. Совершает регулярные сезонные миграции. Самки рожают одного детеныша дл.140-160 см. Окраска резко меняется с возрастом: новорождённые – аспидно-синие, затем Б. становятся серыми, светло-серыми (голубые), только взрослые – белые. Объект промысла – используется шкура и жир.

(흰돌고래, 일명 흰곱등어, 큰 이빨을 가진 고래들의 아목으로서 돌고래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이다. 몸체의 길이는 6m까지 되며 무게는 1.5t에 달한다. 엄지들의 색깔은 흰색이다. 극지대에 원형으로 분포되어있으며 얼음이 있는 북극의 바다들에서 서식한다. 피부는 두꺼우며(2cm까지) 부드러운 상피로 되어있다. 가재비슷한 물고기들과 조가비류들을 먹는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자주 큰 강들로 올라가기도 한다. 이따금 아무르강을 따라서 2 000km나 올라오기도 한다. 무리지어 산다. 정상적인 계절이동을 한다. 암컷들은 새끼를 한마리씩 낳는데 길이가 140~160cm이다. 흰돌고래의 색은 나이에 따라 심히 변한다. 갓난새끼때는 검청색이고 그다음에는 재빛색, 밝은 재빛색으로 변하며 엄지때는 흰색으로 된다. 가죽과 지방은 공업용으로 쓰인다.)

В эти короткие миги, жадно озирая их, успевая схватить какие-то подробности в их движении, в их выражении – поразился я какой-то их нездешности, их уродливой красоте... Они казались первобытно-слепыми, как какой-нибудь бледный подземный червь, потому что глаза их были смещены назад и в стороны, а спереди – только этот мертвенный, ничего

не выражающий, тупой лоб.

Было в них ещё что-то от тритона. Когда они по очереди и сразу выходили, выставляли, как говорят поморы, из воды дохнуть воздухом и опять погружались в зеленую пучину – вот тогда в их выгнутых острых хребтах в миг погружения чудилось мне что-то от саламандры, от тех земноводных, которые одни жили когда-то на земле, залитой водой.

Но еще были они и прекрасны. С гладкой, как атлас, упругой кожей, стремительные, словно бы даже ленивые в своей мощи и быстроте...

Но разглядев белух, я вдруг остыл и положил винтовку.

(이 순간에 흰돌고래들을 냇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놈들의 움직임과 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던 나는 그 어떤 피상한 아름다움에 경탄하였다. 그놈들은 마치도 금방 땅속에서 나온 벌레처럼 소경같았다. 눈은 뒤쪽으로 량옆에 있었고 아무런 표정도 없고 생기도 없는 이마만이 앞쪽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놈들은 바다신처럼 보였다. 그것들이 차례로 숨쉬려고 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푸른 심연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북해의 원주민들이 말하듯이 그것들의 굽은 예리한 등때기는 쓸라만 드라도롱롱, 그 어느때인가 지구가 물에 잠겼을 때 이 땅에서 살던 량서류의 등때기와 류사했다. 흰돌고래들은 아름답기도 하였다. 마치 공단과 같은 피부를 가지고있었으며 굽은 동물이 최대마력을 낼 때처럼 속도도 있었다.

흰돌고래를 살펴보던 나는 갑자기 굳어지면서 사냥총을 떨구었다.)

첫번째 본문은 흰돌고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과학정보자료를 내용으로 주고있다. 흰돌고래의 서식지, 외형, 나이별특성, 생활방식과 경제적의의에 대한 자료를 주었다. 여기에는 전문용어와 구체적묘사성격을 띤 어휘들(длина, кожа, слой, детеныш, новорожденный, моллюски, жир, окраска, весит, питается, населяет, белый, аспидно-синий, светло-серый, голубой 등)이 리용되었다.

여기서 명사들은 모두 기본뜻으로 리용되었으며 형용사들은 대상의 징표와 특징만을 지적하고있다. 본문의 문장구조는 《백과사전》적인 특성을 띤다. 구체적으로 보면 순차성을 가지는 단일문과 병렬복합문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을 보고 뒤문장을 쉽게 리해할수 있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문들로 구조를 이루고있다.

레: Распространена круглополярно. Питается рыбой.

문장구조와 명명적성격의 어휘들도 객관적으로 과학적해석을 쉽게 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있다. 이것은 과학문체의 특수한 종류인 백과사전의 목적과 과제에 부합된다. 즉 개념, 현상, 사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엄격한 과학적서술과 해석을 주고있다.

두번째 본문도 흰돌고래에 대한 본문이다. 여기서 작가는 아름다우면서도 무시무시한 짐승에 대하여, 원시적이면서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있는 흰돌고래의 외형을 묘사하려고 하였으며 자연에 대한 자기의 시적인 감정, 흰돌고래에 의한 자기의 승화된 감정세계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두번째 본문에서는 형상성을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도에 맞는 어휘가 선택되었으며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력이 강한 문장형태론적구조로 안받침하고있다.

본문에서 작가는 표현력이 강하고 그 의미가 정확한 단어들을 선택하여 쓰고있다. 작

가는 본문에서 단어 мгновение를 쓸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어 миг를 선택하였다.(В эти короткие миги, в миг погружения...) 짧은 단어형태인 миг는 흰돌고래들의 동작의 민첩성과 박력, 잠수속도를 더 잘 표현하고있다. 복수형태인 миги는 잠재적으로 리용이 가능하나 로씨야어단어 миг는 단수로만 쓰일수 있다는것이 일반규범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것은 작가가 일정한 의도를 부각시키기때문에 우의 본문에서는 무리로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복수형태들인 нефти(원유), масла(기름), сахара(사탕가루) 등이 과학문체의 본문에서는 과학문체적형태로 될수 있지만 문학예술문체의 본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작가의 주관적의도, 구상 등에 의하여 제기되며 이런 현상을 표준규범에서의 《리탈》로 평가한다.

흰고래들의 잠수장면에서 받은 감명을 보다 박력있게, 표현력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작가는 동사결합 выходили из воды을 보다 더 명백하게 표현할수 있게 방언 выставали из воды을 리용하였으며(Когда они по очереди и сразу выходили, выставали, как говорят поморы, из воды.) 왕성한 흰돌고래의 힘있는 들숨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속어 дохнуть(...чтобы дохнуть воздухом...)를 리용하였다.

이 본문에서는 형상성이 강한 어휘들을 리용하여 범상치 않게 벌어진 사건을 목격한 작가의 커다란 감명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실례문에서 리용된 단어 озирая, поразился, пучина, чудилось는 자기의 중성적인 동의어들을 가진다. 자기의 표현력으로 하여 이 단어들은 작가가 본문에 흥분된 색조를 부여할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보다 더 밝게, 풍부하게 표현한다. 동사 озирать는 그 무엇을 그저 살펴보는것이 아니라 눈길로 대상전체를, 전체 장면을 즉시에 끌어안는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동사 поразиться는 그저 단순히 놀라는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놀란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그리고 동사 чудиться는 무엇인가 놀랍게 여겨지는것이 현실과 다르게 느껴질뿐만아니라 그 무엇인가 초자연적인것으로 느껴진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명사 пучина는 바다의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매혹적이고 괴상한 자연현상을 낭만적인 형상으로 표현하는 민속풍의 단어이다.

여기서 흥미있는것은 로씨야어어휘구성에는 실지 존재하지 않지만 단어조성규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는 잠재적단어인 нездешность를 리용한것이다. 작가는 단어 потусторонность(래세적인것)를 쓸수 있었지만 그 단어가 심각한 철학적내용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쓰지 않았다. 명사 нездешность는 추상적인 서적체접미사 -ость를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화체와 문학예술본문체에서 능히 허용된다.

본문에서는 표현수단들의 총적인 조화속에서 드물게 쓰이지만 내용이 풍부하고 형상성이 강한 형용사들이 두드러지게 리용되었다. 점층법(градация)의 구성속에 쓰인 형용사 мертвенный(생기없는), 형용사 упругий(탄력있는), 명사 пучина(심연)의 고정적인 형용어처럼 쓰인 형용사 зеленый(푸른)들과 론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개념들의 통일인 모순형용법(оксюморон)도 적용되었다. 모순형용법은 본문에서 음악회곡작품에서의 종결화음처럼 단락을 강조하고 끝맺으면서 아주 적절하게 두번씩이나 리용되었다.(поразился я какой-то их нездешности, их уродливой красоте... С гладкой, как атлас, упругой кожей, стремительные, словно бы даже ленивые в своей мощи и

быстроте...)

작가는 미정표현수단들로서 미정대명사 какой-нибудь червь, что-то от саламандры, жили когда-то на земле들과 조사 бы가 있는 비교구 словно бы 그리고 동사 казаться (Они казались первобытно-слепыми), чудиться(в их выгнутых острых хребтах. чудилось мне что-то от саламандры)들도 의의가 있게 리용하고있다.

문장론적측면에서 보면 поразился я..., глаза их...라는 어순전환수법(инверсия)으로 의미적강조를 하였으며 문구의 감정을 강조하는 단어배렬순서(Было в них еще что-то от тритона: Но еще были они и прекрасны.)도 리용되었다. 본문내용을 의미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마지막단락에 С гладкой, как атлас, упругой кожей, стремительные, словно бы даже ленивые в своей мощи и быстроте...가 쓰이었다. 이러한 결합구조는 뿌슈킨이 창작활동을 하던 시대부터 리용되었으며 오늘날 문학예술문체와 정문체에서 널리 쓰이고있다. 결합구조는 본문에서 기본문장과 함께 통일되면서 박력 있고 표현력이 있는 문장-어휘종합체를 구성한다.

실례의 본문은 1인칭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본문전반에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구조가 배제되는 과학문체나 공식사무문체의 본문들과 대조되는 문학예술문체본문의 문체적특성을 살리고있다. 물론 문학예술문체의 본문들을 객관적으로 다시말하여 제3자의 립장에서 서술할수도 있다. 본문을 구성하고 여러가지 언어요소들을 배합하는 작가의 열정과 환상에 문학예술문체의 특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과학문체나 공식사무문체는 구성과 서술에서 엄격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제1인칭으로 된 서술형태는 자유로운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술에 대화요소들을 포함시켜 문장구조를 유연하고 표현성있게 할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와 같이 로씨야어기능문체에 대한 리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것은 로어언어행위를 바로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현대로씨야문체 특히 기능문체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외국어리론교육을 더욱 완성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로씨야어문체, 로씨야어기능문체